

[1958-01-21, 한국의 전도사를 후원하는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1958년 1월 21일

한국의 전도사를 후원하는 친애하는 후원자님들께,

“후원자님의 한국인 선교사”가 언제 배정되고 사진 등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저의 이전 편지를 통해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당시 지원 가능한 숫자보다 더 많은 지원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라이스(Rice) 목사가 즉시 여러 한국 선교사와 지도자들과 연락을 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사진과 어린이 정보가 나날이 밀려 들어와 현재까지 52명을 배정했습니다. 배정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신중하게 처리되고 승인된 후 저에게, 그다음에는 후원자에게 전송됩니다.

사역자들 중 일부는 3월에 졸업할 성경연구소와 신학교 학생들로, 전도와 영혼 구원 및 새 교회 개척에 전 시간을 바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형태로 전도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후원신청서를 받은 순서대로 사역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내 모든 서류가 도착하여 여러분께 배송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역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과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수고를 통해 올해 안에 수천 명이 개종하고 수십 개의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봄에 한국에 가면 이들을 많이 만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기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영혼을 위하는 마음으로,

에버렛 F. 스완슨 올림